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021. 9. 2.(목) 14:00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여 소통하고 공감하며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 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달라진 일상에서도 충북교육이 안 정적으로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상생을 목적으로 정부의 제2회 추경에 따라 증액된 보통교부금과,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특별교부금, 국고 보조금이 주요 세입 재원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중점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충북교육회복종합방안, 둘째,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 셋째,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등이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8%인 3,1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149억 원, 기타 이전수입 15억 원, 자체수입 4억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이전수입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2,654억 원, 평생·직업교육 6억 원, 교육일반 483억 원, 예비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39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05억 원, 교육복지지원 25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32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06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56억 원, 평생교육 6억 원, 교육행정일반 455억 원,

기관운영관리 2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신규 확진자가 생겨나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본격화한 대유행은 고강도의 거리두기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실정입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생겨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코로나19를 기회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워 새로 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김 병 우